

일본어 놀이 어휘를 통해 살펴본 해역언어학 연구*

양민호**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4. 한국의 일본어 편 가르기
구호와 방언구획 |
| 2. 선행연구 | 4.1 방언구획 |
| 3. 일본어 놀이언어 | 4.2 일본어 편 가르기 구호의
다양성 |
| 3.1 오자미(콩주머니) | 5. 나오며 |
| 3.2. 썩썩(손뼉치기 놀이) | |
| 3.3 하나이치몬메(우리집에
왜왔니) | |

Key words: 언어전파(Propagation of language), 해역언어학(Sea Region Linguistics), 기층문화(Substratum Culture), 놀이언어(Play Language), 구호(Chant)

<요 지>

日本語の遊びことばから見た海城言語学の研究

梁敏鎬

本論文では海を渡って韓国に入ってきた海城言語学的語彙について考察してみる。まず、韓国内で使われている遊びのことばの一部を紹介し、その遊びのことばのうち、チーム分けの掛け声について韓国の方言分布に準じて調べた。これにより、言語交流と伝播という側面から言語基層文化を理解しようとした。論文の内容をまとめると次のとおりである。

さまざまな遊びとともに使う用語も一緒に伝来してくる。韓国には馴染んで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사회언어학, 일본어학

いる遊び方や掛け声が海域を渡って日本からきたものが存在する。‘手打ち遊び’ ‘せっせっせ’、‘豆袋投げ’と呼ばれる‘おじゃみ’、そして‘花いちもんめ’という日本の韻律を持っている‘うちになぜ来たの(ウリチベウエワンニ)’などがある。特に‘せっせっせ’と‘花いちもんめ’負の記憶として残っている。

次に‘チーム分け’の掛け声を韓国の方言分布別に分けてみた。まず、日本の強占期時代には権威(**prestige**)の言語が日本語であったために日本で使用されたチーム分けの掛け声が韓国に受容されてきた。その種類は、大きく‘デテンチ(手天地)’、‘デンディ’、‘ソライ(空)’、‘ウエシダリ(上下)’、‘ウラウムンテ(裏表)’がある。これに方言圏論を代入して見ると、“ウラオモテ”のパターンが最も古く、‘ウエシタ’、‘ソラ’のパターン、最後の日本語表現で‘デテンチ’と見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強占期時代以降、近現代にはそれらを翻訳した韓国語のパターンが広まったと判断できる。このように中心地の言語はその権威と威厳によって周辺地域に伝わり、受け入れやすくなる。本論文では一部の語彙を海域言語学的立場から考察したが、今後、地域を拡大し、語彙を増やし、東北アジア海域の言語基層文化に対する理解を深めたい。

1. 들어가며

어느 나라,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놀이문화는 일반 대중의 기층문화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비교적 보편적이면서 간단한 동작과 구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익숙한 놀이문화 속에는 노는 방법과 외치는 구호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세대에 따라 변해가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놀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놀이방법과 구호가 해역을 넘어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 상당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손뽀치기’놀이인 ‘셋셋세’, ‘콩주머니 던지기’라고 불리는 ‘오자미’ 그리고 이동 놀이 ‘우리집에 왜 왔나’라고 하는 ‘하나 이치몬메’ 등과 같이 다양한 놀이들이 존재한다. 각각의 놀이 방법과 용어에는 알게 모르게 일본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특히 이러한 추억 속 놀이를 시작할 때 편을 갈라야 한다. 이때 우선 두 팀으로 나눌 경우, 가위바위보 또는 손을 내밀어 손등과 손바닥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행해진다. 이 구호 안에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던 일본

에서 온 말이 많이 감추어져 있다.

다양한 놀이와 함께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함께 전래해 들어오는데 이렇게 다양한 말 중에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어휘들도 있지만 이웃 나라와의 교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도 많다. 말이 음운 변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말로 바뀌었을 경우 문화적 중심지에서 먼 곳에 오래된 형태의 말이 남기 쉽다. 일제강점기 문화적 중심지 언어였던 일본어는 그 권위와 위엄에 의해서 주변지역으로 전파되어 수용되기 쉽다. 이와 같이 해역이라는 공간을 건너 언어전파)에 의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존재하는 어형을 살펴보았을 때 언어학적으로 또는 민속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왜냐하면 그 어형이 어떤 식으로 건너왔고 어떠한 형태로 살아남았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언어전파에 대한 이론을 검증할 수 있고 또한 바다를 건너가 수용되고 정착되어가는 해역언어학²⁾이라는 기초학문의 이론을 정립시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비교적 간단히 기술되어 있어 학술적으로 검토하거나 비교하려 했던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바다를 건너 한국에 들어온 놀이 일부와 놀이의 시작단계에서 반드시 행해지는 편 가르기 구호에 대하여 한국의 방언권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일본에서는 놀이언어가 佐々木(2014), 遠藤(2019)처럼 주로 방언학적 입장에서 지협(地峽)적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그 어휘가 한국으로 건너갔는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한국의 놀이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실천민속학적 입장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이병담(2006)에 따르면 식민지시기에 조선의 아동은 근대적 과정에서 자

-
- 1) 언어지리학에서 언어전파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인접분포의 원칙(인접지역 원칙) -주변분포의 원칙(인접지역 원칙) -고유변화의 원칙
 - 2) 해역언어학이란 ‘언어의 이동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해역’이 매개가 되어 바다를 왕래한 언어나 어촌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연구한다. 해역언어학은 이러한 이동을 통해 그 지역에 수용되고 정착된 언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언어학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립적인 존재로서가 아닌 타율적이며 강제적인 규율과 사·공간이라는 구조 속에 편입되어 자랐다. 더욱이 식민지 아동은 근대 조선의 주체적인 국가개혁의 틀 속에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제가 정해준 규율과 학습을 통해 근대인으로 양성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성이나 자율적인 의지를 키워가지 못한 식민지 아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들과 더불어 일과 놀이를 공유하다가 곧바로 학교라는 제도 속에 편입되어 부모로부터 격리되거나 민족성까지 분리된 채 사회적인 존재로 자랐다. 즉 이들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분리된 상황을 통해 사회적인 존재 혹은 국가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격리나 분리는 학교제도나 교육이 그 중심에 있었다. 여기에서 가족이나 가정은 재산이나 가문을 유지하는 사적 기능보다는 아동의 정신적·도덕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데 있었고, 학교 교육의 보완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과 놀이를 공유의 대상으로 생각해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영미(2015)는 전시기 조선총독부의 오락정책과 그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총독부의 오락정책은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로 오락이란 주로 농촌 대중 기층서민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국일본의 문화운동과 맞물려 실제로 농촌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난주, 송재용(2011)도 향토오락 진흥책이 1930년대 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술하고 있어 김영미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종원, 송재용(2018)에 따르면 식민지시기의 신체놀이 중에서는 식민지적 요소가 쉽게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규율성을 강조하는 놀이라던가 신체 단련을 강조하는 놀이, 그리고 군가를 부르게 하였다든 점 등에서 그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놀이들이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져 서민층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左惠景(1990)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아동놀이를 비교하면서 일본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아동놀이가 한국에서도 행해지고 있으며 그 비슷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동양인으로서의 신체조건, 기후환경의 유사성, 동일문화권으로 볼 수 있지만 일본 놀이의 명칭이 그래도 사용되어지는 것은 문화수수(文化授受)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놀이문화의 일본영향을 주로 설

명하면서 놀이의 유형 및 방식에 대한 설명이 주된 이슈였다. 본 논문에서는 놀이 유형과 방식이 아닌 놀이 어휘 일부를 해역언어학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그 중에서 바다를 건너 와서 언어전파 분포가 잘 드러난 어휘에 대하여 방언 분포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3. 일본어 놀이언어

3.1 오자미(콩주머니)

어린 시절 가을운동회에서 ‘박 터트리기’는 대부분 경험해본 놀이이다. 운동회가 시작되면 청팀과 백팀이 막대기에 매달린 박을 터트리는 경기가 있다. 박이 터지면서 안에 있던 색종이 꽃비가 내리고 ‘축하합니다’라는 글귀가 써진 종이가 내려온다. 이 때 열심히 박을 터트리기 위해 사용했던 콩주머니, 또는 모래주머니 그것을 ‘오자미(おじゃみ)’라고 불렀다. 이 ‘오자미(おじゃみ)’의 명칭은 일본에서 건너 온 것이다. 일부 일본에서는 ‘오테다마(お手玉)’라고도 하며, 오자미는 규슈(九州)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전역에서 통용되고 있다.



‘오테다마(お手玉)’ ‘오자미(おじゃみ)’

원래 형겅 주머니에 콩과 팥 등과 같은 곡식을 넣어 사용했기 때문에 가지고 놀다가 맞아도 아프지 않았던 것이다. 오자미 놀이는 두 세 명이 편을 나누어 좁은 공간에서 즐길 수 있으며 민첩성도 길러 주고, 별다른 도구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놀이이다. 원래 ‘오자미’의 어원은 미화(美化) 접두어 ‘오(お)’에 주머니 안에서 콩들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의 의성어 ‘자미(じゃ

み)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이다. 일제강점기 학교 교육이 본격화되고 운동회가 열리기 시작되면서 건너온 놀이라고 할 수 있다.

3.2 췌췌췌(손뽀치기 놀이)

다음으로 ‘췌췌췌’ 손뽀치기 놀이는 이미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선행연구로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어린 시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놀이 중에 ‘오자미’말고도 ‘췌췌췌’와 같이 우리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마주보고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맞춰 노래하면서, 서로의 손바닥을 마주치는 아이들 손뽀치기 놀이 ‘췌췌췌’가 있다. 손뽀치기는 두 손을 이용한 놀이이다. 지역적 차이를 보이며 한국에서는 ‘세세세’나 ‘췌췌췌’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일본의 손뽀치기 놀이의 구호 ‘셋셋세(せっせっせー)’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선 언급한 것처럼 지역적으로 조금씩 후렴구가 다르지만 일반적 가사는 다음과 같다.

췌췌췌 아침마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우리 선생 계실 적에 옆서 한 장 췌 주세요~
구리구리 장꺾뽀(가위바위보)~

이 노래 가사 안에는 ‘췌췌췌(せっせっせ)’를 비롯하여 ‘구리구리(ぐりぐり)’ ‘장꺾뽀(じゃんけんぽん)’와 같은 일본식 표현이 담겨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말미에는 이기고 지는 행위를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놀이이다.

せっせっせー、の よいよいよい……
셋셋세 노 요이요이
せっせと働きなさいよ。まだ宵の口なのだから。
어서 일하라, 아직 초저녁이니,
さぁ用意して、用意して、用意して
어서 준비해 어서 준비해
おちゃらか おちゃらか おちゃらか ほう!
오차라카 오차라카 오차라카 호이!
ほら、さっそく客がおちゃらかしに来たよ。

봐라 벌써, 손님이 왔잖아
 あの子かな、この子かな、どちらかな……決まった!
 이 아이를 고를까 저 아이를 고를까 어느쪽이려나
 おちゃらか 勝ったよ(or負けたよ) おちゃらか ほう!
 오차라카 갓타요(또는 마케타요) 오차라카 호이
 どっちの娘が買われたかな?売れ残ったかな?ほれ、もう一度
 어느 쪽 유녀(遊女)가 팔렸고, 어느 쪽이 남았나.

다만 이와 같은 손동작 놀이가 일제강점기를 거쳐 전래동요로 둔갑되어 애용되고 있다. 이 놀이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다. 물론 현재 한국 노래 가사가 아니고 일본의 가사에도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에도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놀이의 숨겨진 가사의 의미다.

위의 가사처럼 원래 에도(江戸)시대 유곽에서 일하는 두 여자가 마주보고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맞춰 노래하면서, 서로의 손바닥을 마주치는 손뼉치기 놀이가 한국 고유의 전래동요로 변하게 되는 가슴 아픈 서민 기층문화의 일례라고 볼 수 있다.

3.3 하나이치몬메(우리집에 왜왔니)

‘췌췌’와 비슷한 취지를 담은 ‘우리 집에 왜왔니?’라는 놀이도 있다. 일본어로는 ‘하나이치몬메(花一匁)’라고 한다. 우선 두 팀으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른다.

勝って嬉しい花一匁、
 갓테 우레시이 하나이치몬메,
 이겨서 기쁜 꽃 1문(화폐 단위)
 負けて悔しい花一匁
 마케테 구야시이 하나이치몬메
 져서 분한 꽃 1문(화폐 단위)

의미는 ‘이겨서 기쁜 꽃 1문(화폐 단위), 져서 분한 꽃 1문(화폐 단위)’으로,

꽃을 사고자할 때 값이 깎여서 슬픈 판매자와 싸게 사서(이겨서) 기쁜 매수자의 모습을 표현한 놀이이다. 보통 여기서 꽃은 젊은 여자로 비유되는 보편적 은어(隱語)인 셈이고 판매자는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포주인 것이다.

사실 어릴 때 누구나가 흠먼지 가득한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손을 잡고 우렁차게 불렀던 ‘우리 집에 왜왔니 왜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바위보’라는 노래가사가 기억된다. 이렇게 선명하게 한국 놀이문화 속에 뿌리내린 유희(遊戱)지만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구호조차 외치기 꺼려지게 된다. 하나이치몬메는 어쩔 수 없는 일본식 표현과 놀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유년 시절 알아채지 못했던 일본 놀이문화의 흔적들. 한국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일본과 관련된 많은 흔적들을 지우려 하고 있다. 다만 서민 기층문화 속에서 접근하기 쉬웠던 놀이문화, 그 안에 숨겨진 일본어의 비밀은 그리 쉽게 드러나지 않았기에 전통놀이와 혼재되어 희석된 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기원이라고 알려진 남대문 놀이, 수건돌리기도 일제의 잔재라고 볼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4. 한국의 일본어 편 가르기 구호와 방언구획

앞서 언급한 놀이는 시작하기 전 또는 이후에 반드시 편을 나누게 되어있다. 이때 우선 두 팀으로 나눌 경우, 손을 내밀어 손등과 손바닥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행해진다. 그런데 이 구호 안에는 순수 한국어도 존재하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던 바다를 건너 일본에서 온 말이 많이 숨겨져 있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방언권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의 방언구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4.1 방언구획

한국의 방언구획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창되어 왔다. 우선 초창기에 방언구획을 설명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극로(1932)가 ‘조선말의 사투리’에서 관서방언, 관북방언, 중부방언, 호남방언, 영남방언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오구라 신페이³⁾는 제주도 방언을 넣어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평안

도 방언, 함경도 방언, 경기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으로 구분하였다. 오구라는 한국어 방언구획을 체계화시킨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이승녕은 평안도 방언, 함경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 중부 방언으로 6개로 구획하였다. 다만 오구라와는 조금 다른 6구획 구분법이지만, 기본 틀은 오구라의 구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에는 한국방언학회에서 구분한 방언구획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오구라 신페이의 구획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구분법은 다음과 같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방언(육진(함북)방언, 함경도방언) - 서부방언(평안도 방언) - 중부방언(황해도 방언, 경기방언, 충청도 방언, 영동 방언) - 동남방언(경남방언, 경북방언) - 서남방언(전라도 방언) - 제주방언 |
|--|

본 논문에서는 위키백과 전국 편 가르기 구호와 인터넷 전국 편 나누기 버전(2020.05 ver.)을 사용한다. 그 데이터 안에는 북한 쪽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 방언을 제외하고 생각하겠다. 그렇다면 중부방언, 동남방언, 서남방언, 제주방언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4.2 일본어 편 가르기 구호의 다양성

이상에서 한국방언권 구분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실제로 편 가르기 구호는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 TV프로그램이나 일선학교 지리교사가 인터넷 조사, 그리고 위키피디아와 같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전국 편 가르기 구호를 수집하고 소개하고 있다. 전국에는 도저히 알아듣기 힘든 주문(呪文)과 같은

3) 1903년에 도쿄 제국대학에 입학해 언어학을 전공했으며, 1906년에 졸업 논문 <헤이안 조의 음운> (平安朝の音韻)을 썼다. 이후 우에다 가즈토시의 국어학 연구실에서 조수로 있다가 1911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했다. 1924년부터 1926년까지 유럽과 미국에 유학한 후,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1933년부터 1943년까지는 도쿄 제국대학 언어학과 주임교수로 있었다. 1920년에 《조선어학사》(朝鮮語學史)를, 1944년에 《조선어 방언의 연구 (상·하)》(朝鮮語方言の研究)를 출간했다. 1935년에 <향가 및 이두의 연구> (鄉歌及び吏讀の研究)로 제국학술원 은사상을 받았으며, 1943년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문화공로상을 받았다.

형태도 있고, ‘흰둥이 검둥이’처럼 순수 우리말도 섞여있다. 최근에는 ‘엎어라 뒤집어라’, ‘엎어라 젓혀라’처럼 바로 듣고 알아차릴 수 있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데텐찌’와 ‘텐디’, ‘으라으문테’, ‘우에시다리’ 등과 같은 알아듣기 어려운 형태도 여전히 많다.

우선 가장 많은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는 ‘데텐찌’는 실제로 일본 발음이다. 손등과 손바닥을 가리키며 주로 편을 가를 때 ‘데텐찌’ 하면서 손등이나 손바닥을 내밀고, 같은 것을 내민 사람끼리 같은 편이 된다. ‘데텐찌’의 일본어 한자 는 ‘手天地’에서 따온 말이다. 손을 가리키는 ‘테(手)’와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텐찌(天地)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또 ‘데텐찌’의 어형 변화로 볼 수 있는 ‘텐디’, ‘젠디’가 있다. ‘텐디’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텐찌’의 발음이 평음화해 변화한 것이다. 부산에서는 ‘텐디’, ‘젠디’라고 부르고 서울에서는 ‘데텐찌’라고 부른다. 또 대전에서는 ‘우에시다리’, 전주에서는 ‘으라으문테’라고 한다. 이러한 편 가르기 전국지도가 언젠가부터 인터넷 상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시작하는 이러한 골목 놀이의 구호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우선 전국의 편 가르기 구호에 대하여 일부 지역의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표1〉 방언구획별 대표 어형

<중부:경기>	서울: 데텐찌 / 인천: 엎어라 뒤집어라 / 평택: 엎어라 젓혀라
<중부:영동>	강릉: 편~짜 편자 편!짜! / 태백: 텐뽕, 아래 위
<중부:충청>	충주: 데텐찌 /
대전:	우에시다리 /
논산:	흰둥이 검둥이 / 부여: 이거~이거! 오니 뽑기
<동남:경북>	포항: 타안타안비
<동남:대구>	포항: 텐지시 오렌지씨 되는대로 먹자 성내면 뻘다
<동남:부산>	부산: 텐디, 젠디 /
<동남:경남>	진주: 텐찌뽕 / 김해: 젠디, 하늘과 땅
<서남:전라>	전주: 우라으문테 /
<서남:전라>	순천: 우라무라때 / 광양: 소라이소라이에취
<서남:광주>	광주: 편뽑기 편뽑기! /
<제주>	제주: 하늘과 땅이다 일러도 모르기

〈표3〉 중부방언권-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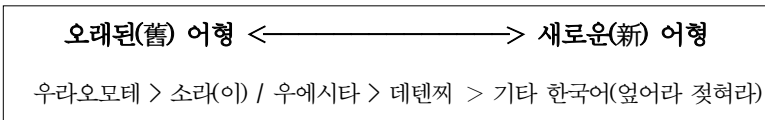
광역	지역	패턴수	패턴	
강원	철원	1	뒤집어 얹어 꺾글러도 말 못해	
	춘천	2	얹어튀기 먹을까- 꺾글러도 말 못해	아기리에 뚱쳐넣기
	인제	1	데덴찌	
	속초	1	덴-찌 덴찌 덴찌	
	홍천	1	어글러도 꺾글러도 한판	
	강릉	2	한리이 놀이 땅! 권-짜 권자 권짜	하늘땅
	동해	1	띠인- 띠안-보!	
	원주	1	얹-었다 뒤집었다-	
	삼척	1	탄-탄-탄	
태백	1	덴보 아래/위		

표4의 충청권에서는 충주의 ‘데뎨찌’를 제외한다면 중부 방언권에서 다른 형태의 구호가 보인다. 예를 들어 ‘얹어라 짓혀라’, ‘얹어라 뒤집어라’, ‘훤둥이 검둥이’ 등과 같이 중부 방언권으로 묶이지만 조금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 ‘우에시다리’의 형태가 보이지만 이는 위와 아래의 일본어의 잔존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우에시다리’는 ‘위(우에 上)’ ‘아래(시타 下)’의 발음이 변한 형태이다.

〈표4〉 중부방언권-충청

광역	지역	패턴수	패턴		
충청북도	제천	1	하늘-선 하늘-선 띠찌		
	충주	2	데덴찌	하늘 하늘 하늘 땅이요	
	음성	1	얹아라 뒤집아라 얹어		
	청주	2	얹혀 뒤쳐 얹혀 뒤쳐	주먹 가위 주먹 가위	
	천안	2	얹아라 짓혀라 꺾글러도 오른다 통피떡기다	얹아라 뒤져라	
	보은	1	탄탄버어		
	옥천	1	얹뒤뚱		
	영동	1	편모오쓰리 불러도 다르소 아기리에 뚱쳐넣기		
	금산	1	편나이 편나이 배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1	요직요래 장민 세어	
충청남도	공주	1	후라이사쓰		
	논산	1	훤둥이 검둥이		
	부여	3	얹아라 뒤집아라	아기이거	오니뽑기
	보령	3	얹아라 짓혀라	드라므로 드라므로 배어	훤뽑기 할살기 없음
	아산	1	얹아라 짓혀라 훤살아도 살기 굽번지 억한개		
	당진	1	얹아라 짓혀라 꺾어도 살기		
	서산	1	얹아라 짓혀라 훤살아도 살기 굽번지 억한개		
	예산	2	어를 저를 저저를	얹아라 짓혀라 꺾단말 없이 먹는다로 먹자	
	홍성	1	편들어 주세요- 오들어도 들기- 통 뺨아먹기		

용되는 경향이 있다. 도호쿠(東北) 지역에서 규슈(九州) 지역까지 국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라오모테’, ‘우에시다리’가 가장 오래된 형태이고 일제 강점기 후반에 널리 퍼졌다고 예상되는 ‘데텐찌’가 가장 최근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데텐찌’의 형태가 전국으로 퍼져갔으며 시대가 흘러 일본어인지 한국어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형태로 정착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지리학적으로 나누어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데텐찌’ 지역,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 ‘덴디’ ‘덴지씨’ ‘하늘 땅’ 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대전과 전주는 ‘우에시다리’ ‘오라오문테’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편가르기 구호는 확실히 바다를 건너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는 ‘엎어라 뒤집어라’ ‘엎어라 짓혀라’ 형식으로 순화되어 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놀이는 1900년대 초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서민의 기층문화로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 많다.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목표를 설정하였고, 교과과정에 그러한 교육이념을 담았다. 1911년부터 1945년까지 1차에서 4차에 걸친 조선교육령을 발표하면 식민교육에 앞장섰다. 교육과정 속에 민족말살정책으로 음악교육에는 조직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서민의 기층문화 즉 놀이문화 속까지 알게 모르게 일본어가 스며들었던 것이다.

5. 나오며

이상과 같이 해역언어학적 측면에서 놀이 언어를 통해 언어전파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의 내용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일본의 놀이언어를 교육에 접목시켰고, 그 잔재의 분포를 방언구획에 따라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본 논문 초반에는 유년기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오자미’를 집어 들고 박을 터트렸던 기억과 손바닥을 부딪히기면서 놀았던 손뽕치기 놀이 ‘썸썸’, 그리고 ‘우리집에 왜왔니’와 같은 활동놀이에 대한 기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러한 놀이들이 행해지기 직전에 행해지는 편 가르기 구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편 가르기 구호에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일본어가 섞여 있다. ‘데텐찌’는 서울을 중심으로 중부방언의 경우 가장 많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데텐찌’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덴디’ ‘젠디’이다. ‘덴디’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텐찌’의 발음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부방언 중 남쪽 지방에 해당되는 대전에서 사용한다는 ‘우에시다리’ 역시 ‘위(우에 上)’ ‘아래(시타 下)’의 일본어 발음이 변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서남방언 중에는 전주에서 사용하는 ‘으랴으문테’는 ‘뒤’ 또는 ‘안’을 의미하는 ‘우라(裏)’와 ‘앞’ 또는 ‘갈’을 의미하는 ‘오모테(表)’를 의미한다. 제주 지역은 ‘하늘과 땅이다 일러도 모르기’ 그리고 동남방언의 경우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쪽은 ‘덴다’를 포함하여 ‘편떡기’ ‘하늘 땅’으로 구분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편 가르기 놀이 구호는 일제강점기 바다를 건너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일본에는 ‘데텐찌’를 사용하는 지역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우라오모테’ 방식의 편 가르기 방식이 남아 있다.

현재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에 익숙해진 디지털 사회의 요즘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아날로그적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놀이문화 용어는 앞으로도 점점 자취를 감추어 갈 것이다.

예로부터 언어전파는 한국과 일본 간에 자의건 타의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현재는 더욱 다양한 패턴으로 언어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언어 교류와 전파의 양상을 본 논문에서는 놀이언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향후 지역을 확대하거나 어휘를 늘려 동북아해역 언어기층문화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별 수용과 변용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본 논문에서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지역별 전파자(일제강점기 일본인 이식민)의 차이(출신지, 계층)가 수용자의 차이에서 발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밝혀야 할 것이다. 놀이 문화 및 어휘의 전파, 수용, 변용 과정의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한 보다 정치한 분석과 해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난주, 송재용 (2011) 「일제강점기 향토오락 진흥정책과 민속놀이의 전개양상」 『비교민속학』 no.44, pp.397-425.
- 김영미 (2015) 「전시기 조선총독부의 오락정책과 그 특징」 『한일관계사 연구』 52 한일관계사학회, pp.383-421.
- 서종원, 송재용 (2018) 「식민지 시기 아동놀이의 실체와 특징」 『실천민속학연구』 20호, pp.105-133.
- 양민호 (2019) 「언어전파로 살펴본 해역언어학적 어휘 연구-박래어와 일본 진출 외어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110, pp.103-119.
- 이병담 (2006) 「식민지 아동의 의식 작용과 植民性的 환원-朝鮮總督府普通學校修身書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31, pp.261-262.
- 左惠景 (1990) 「韓·日 아동놀이의 비교」 『韓國民俗學』 第23輯, pp.135-153.
- 井上史雄 (2001) 『日本語は生き残れるか』 PHP新書, pp.1-207.
- 遠藤なつみ (2019) 「長野県におけるジャンケンの地域的分布とその特色」 『日本方言研究會 109回 發表要旨集』, pp.33-40.
- 佐々木香織 (2001) 「新潟県佐渡・下越地方の2チーム分けジャンケンのかけ声~ Picasa ウェブアルバムとGoogle Earthで作る言語地図」 『新潟国際情報大学情報文化学部紀要』 17, pp.1-13.

【참고 URL】

-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9577835>
- <https://j-town.net/tokyo/column/gotochicolumn/212950.html?p=all>
- <https://ko.wikipedia.org/wiki/%EC%86%90%EB%BC%89%EC%B9%98%EA%B8%B0>
- <http://cafe.daum.net/chosunsa/POV0/2886?q=%EB%B0%A9%EC%96%B8%EA%B5%AC%ED%9A%8D>
- <http://cafe.daum.net/nory79/U0cG/32?q=%EC%9A%B0%EB%A6%AC%EC%A7%91%EC%97%90%20%EC%99%9C%EC%99%94%EB%8B%88%20%EB%86%80%EC%9D%B4%EB%B0%A9%EB%B2%95>
- http://yang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yangju&dataType=01&contents_id=GC04301533

저자명 : 양민호(Yang, Minho)
이메일 : minhojinsei@gmail.com

접수일 : 2020. 04. 16.
심사개시 : 2020. 04. 20.
심사완료 : 2020. 05. 11.

<Abstract>

A Study on the Japanese Play Vocabulary of Sea Region Linguistics

Yang, Min-Ho

This paper studied the sea region linguistic vocabulary that came to Korea across the sea. First of all, I introduced some of the play vocabulary used in Korea, and looked at the Korean dialect section on the dividing chant among the play languages. Through this, the base culture was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language exchange and propagation. The contents of the the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terms used with various games have also been passed on. Many familiar play methods and chants from Korea have crossed the sea region from Japan. There were songs with Japanese rhymes such as "Clap Your Hands," "Sesese," "Ojami," and "Hanaichimonme." In particular, "Sesese" and "Hanaichimonme" have negative meanings. Next, the team classification chant was divided into Korean dialects. First of all, languages used in Japan because Japanese occupation, domination team classification chant has been in Korea. There are mainly 'Tetenji', 'Dendi', 'Sorai', 'Ueshidari', and 'Uramunte'. To explain this as a dialect wave theory, the "Uraomote" pattern is the oldest, and the "Ue-sita," "Sora" pattern, and the last Japanese expression can be seen as "Tetenji." It can be judged that patterns of the Korean language that translated it have spread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such, the language of the central region is easily accepted by its authority and dignity as it spreads to other regions. In this paper, some vocabularies were considered from a sea region linguistics perspective. It aims to help understand the language base culture in Northeast Asian sea region by expanding regions and increasing vocabulary in the future.